

목 차

1-1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삶 - 신앙의 여정과 성장과정	2
1-2	하나님 나라 - 주님의 소망	10
1-3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 왜 십자가입니까?	18
1-4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 주기도문	27
1-5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 - 아인슈타인의 영적 상상력	33
1-6	하나님 나라와 교회 - 아름다운 교회	43
1-7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 공동체의 의미	48
1-8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교제 - 가슴 벅찬 화목제의 삶	57
1-9	하나님 나라의 기초 - 말씀의 집을 짓는 사람들	63
1-10	하나님 나라와 생명사랑 - 이웃 사랑인가 원수 사랑인가?	74
1-11	하나님 나라와 제자 - 제자란 무엇입니까?	81
1-12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 사랑의 섬김	89

1-1.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삶

“신앙 여정과 신앙의 성장과정”



박원호목사(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 단편화된 삶

신학자 프랜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편화"라고 합니다. 삶이 부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뜻인데,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부분은 성경적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적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교회에 나올 때는 정말 좋은 신자이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단편화'라고 부릅니다.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삶의 모든 면들이 다 성경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면만 봐도 전체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고학에서 유물을 발견할 때, 한 조각이 나오면 그 한 조각으로 전체를 그립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전체 그림이 다 나옵니다. 요즘에는 사람의 치아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전체를 다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느 한 조각만 기독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기독교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심각한 삶의 부분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들을 나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가고 있는가?' 당연히 돈에 대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돈의 문제에 대해 바른 신앙관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연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덕의 문제도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서 정직이란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점검되고, 정립되어야 합니다.

●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타종교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삶의 차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바알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수백 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신앙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따라갔습니다. 이 신앙의 특징은 축복 중심이고, 예식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축복 받기 위해 몰려갔고, 그리고 예식 자체에 끌려서 몰렸습니다. 온통 축복과 신비한 경험 중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도덕적인 삶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삶에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은 아무 소용없다고 비난합니다. 바알화가 된 여호와 신앙을 공격했습니다. 당연히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조약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조약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신앙은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삶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앙을 따라갔다는 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다만 그들의 삶이 바알 신앙을 따라간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날들은 바알을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형식화되었고, 삶이 동반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사람들이 집을 짓는 이유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집은 반드시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집을 지을 때, 결코 모래 위에 짓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모래 위에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짓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크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집을 짓는 것은 살기 위함이고,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 삶을 점검하는 신앙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당연히 '삶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앙과 삶이 따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꾸어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신앙으로 삶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삶의 모습을 점검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녀가 어머니께서 식사 준비하시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햄을 굽기 전에 먼저 양 끝을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잘라요?"

"글쎄, 외할머니도 늘 이러셨거든."

"그 이유가 뭐예요?"

"나도 몰라. 외할머니께 물어봐."

어린 소녀는 외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햄을 자를 때 왜 양쪽 끝을 잘라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기 때문이지."

이사야 선지자는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삶에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은 아무 소용없다고 비난합니다. 바알화가 된 여호와 신앙을 공격했습니다. 당연히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조약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조약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신앙은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삶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앙을 따라갔다는 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다만 그들의 삶이 바알 신앙을 따라간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날들은 바알을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형식화되었고, 삶이 동반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사람들이 집을 짓는 이유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집은 반드시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집을 지을 때, 결코 모래 위에 짓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모래 위에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짓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크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집을 짓는 것은 살기 위함이고, 생명과 관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 삶을 점검하는 신앙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당연히 '삶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앙과 삶이 따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꾸어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신앙으로 삶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삶의 모습을 점검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녀가 어머니께서 식사 준비하시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햄을 굽기 전에 먼저 양 끝을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잘라요?"

"글쎄, 외할머니도 늘 이러셨거든."

"그 이유가 뭐예요?"

"나도 몰라. 외할머니께 물어봐."

어린 소녀는 외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햄을 자를 때 왜 양쪽 끝을 잘라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기 때문이지."

이사야 선지자는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삶에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은 아무 소용없다고 비난합니다. 바알화가 된 여호와 신앙을 공격했습니다. 당연히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조약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조약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신앙은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삶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앙을 따라갔다는 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다만 그들의 삶이 바알 신앙을 따라간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날들은 바알을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형식화되었고, 삶이 동반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사람들이 집을 짓는 이유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집은 반드시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집을 지을 때, 결코 모래 위에 짓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모래 위에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짓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크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집을 짓는 것은 살기 위함이고, 생명과 관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 삶을 점검하는 신앙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당연히 '삶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앙과 삶이 따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꾸어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신앙으로 삶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삶의 모습을 점검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녀가 어머니께서 식사 준비하시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햄을 굽기 전에 먼저 양 끝을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잘라요?"

"글쎄, 외할머니도 늘 이러셨거든."

"그 이유가 뭐예요?"

"나도 몰라. 외할머니께 물어봐."

어린 소녀는 외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햄을 자를 때 왜 양쪽 끝을 잘라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기 때문이지."

이번에는 외증조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왜 햄의 양쪽 끝을 잘라요?”

“그거야 프라이팬이 너무 작아서 그랬지.”

대부분의 경우, 예수는 믿지만 그 삶은 과거의 삶을 그대로,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검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되 성경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 물질문명에 빠진 삶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만들어진 물건들은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든 물질보다 더 많습니다. 오늘날 물질의 풍성함은 근대 사회의 기적입니다. 필요한 것마저도 제대로 갖지 못했던 인류의 삶이 이제는 실제로 필요한 물건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불과 40, 50년 전만해도 텔레비전은 극소수의 사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58년 미국 가정의 9.5%정도만이 에어컨을 가지고 있었고, 식기 세척기를 가진 가정은 14%, 1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가정은 15%에 불과했습니다. 교통수단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 미국을 횡단할 수 있었던 주요 수단은 그레이하운드가 그려진 '개 그린 버스'였습니다. 각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디를 가나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또한 '우주 탐험'이란 말은 과학자들 간에 논의되는 대상이었고, '백만장자'는 그 당시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현대 문명을 다른 말로 “물질문명”이라고 부릅니다. 문명 전체가 물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물건, 더 좋은 물건, 더 새로운 물건... 이것이 소망입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어릴 적 우리들은 농촌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가 밭을 갈던 시대였고, 전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해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불과 40년 전입니다. 이러한 삶이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이어왔던 삶이었습니다. 구약의 가나안 시대가 바로 그 농경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불과 4, 50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 가치와 목적의 상실

문제는 물질이 많아지면서 가치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표준이 바뀌었습니다. 도덕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신앙도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삶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평가할 때도 그 기준은 물질입니다. 사람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 잡지 “Psychology Today”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1966년부터 1986년까지 대학교 1학년생들의 가치관을 조사했는데, 학생들에게 “왜 대학에 들어가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전의 대학생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등 다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뒤의 대학생들은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바로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대학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듯 20년 사이에 우리 모두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좋은 삶' 혹은 '더 나은 삶'이란 '더 많이 갖는 삶'입니다. 물질적으로 더 풍성한 삶입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모두 묻혀 버렸습니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경제 이론도 나왔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물건을 많이 만들어왔으니 소비하도록 해야지요. 이 일에 가장 크게 사용된 도구가 바로 미디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디어는 광고로 먹고 삽니다. 광고가 하는 일은 자꾸 사라고 권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것이 나왔습니다, 현 것은 버리십시오, 낡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이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고, 아이들은 열등생이 됩니다' 완전히 세뇌화가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 우리는 과연 행복합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행복합니까? 이렇게 많은 물질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었습니까? 영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각 나라의 행복 지수가 경제력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 6개국의 행복 지수는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178개국 중에서 미국 150위, 프랑스 129위, 영국 108위, 일본 95위, 독일 81위, 이탈리아 66위이고, 우리나라는 102위입니다. 반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 근처에 있는 바누아투라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파나마.... 이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볼 때 가장 못사는 나라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행복을 물질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풍부함을 얻었지만 그 대신, 얼마나 귀중한 것들을 많이 잃었습니까? 가족을 잃었고, 친척들과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신앙도 잃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특별한 일에서 만나는 분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일 속에서 만나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를 잘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천재 화가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그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 깊은 사람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목사였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그 자신도 젊었을 때는 목사가 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 그리고 그의 모든 작품들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의 표현이란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반 고흐를 좋아하는 이유는 정작 미술적인 측면보다는 종교적인 차원 때문입니다. 그의 그림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기 원했지만 가난해서 필요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학갈 준비를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자, 벨기에 전도 학교를 들어갑니다. 전도사로서 벨기에 탄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의 외모가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고 결국 목사가 될 길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화가로 출발하게 됩니다. 설교가 아닌 그림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가 그린 사람들이나 식물, 길, 들판은 바로 자기 내면의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도 반고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훗날, 고흐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끝내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가 아버지의 성경책을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촛대가 있고, 촛대에는 타다 남은 초가 놓여있습니다. 촛대는 죽음과 삶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위에 있는 "ISAIE"라는 글자와 "LIII", 로마자로 '5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고난 받는 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마한 소설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삶의 기쁨 The Joy of Living"인데,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Emile Zola, 1840-1903)의 소설입니다. 성경과 소설을 함께 두면서 고흐는 아버지와 자신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림을 그리는 고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흐 자신은 비록 목사와 교회라는 종교적인 직책과 장소를 떠났지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삶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이 펼쳐져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은 결코 성경을 외면한 삶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에 따라 산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밀 졸라의 작품은 현대판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부유하지만 불행한 가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남편은 모든 일을 어렵게 하고, 부인은 이기적이고, 아들은 나약한 자입니다. 그러다가 뿔렝 케누라는 고아를 입양하게 됩니다. 뿔렝은 고통스럽고 어두운 가정을 마치 빛처럼 밝게 비추고, 가난한 마을 사람에게는 사랑의 천사로 일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사야 53장의 고난 받은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흐는 거룩함이란 결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엮여져야 합니다. 아울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물질입니다. 하지만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2. 하나님 나라

“주님의 소망”



박원호목사(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첫 선포는? 막 1:14, 15.

주님의 첫 기도는? 마 6:9-13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마 6: 31

나는 과연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마지하면 새로운 다짐을 하고 무엇보다 새롭게 신앙을 다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올해는 꼭 주일 성수하겠다, 올해는 꼭 성경을 읽겠다, 올해는 꼭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올해는 꼭 ... 하겠다. 이제 세 주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다짐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는지요?” 어떠한 다짐이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신앙이 깊어 진다함은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더구나 나이가 점점 많아지거나 또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우리들의 삶은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나로부터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채워져야 합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정말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행어나 잊고 있었다면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모든 기도의 터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여러 기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기도의 터전이고 그리고 목적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기초입니다. 집의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노력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이 이 기도가 빠지거나 소홀해지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기도의 첫 제목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가장 먼저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주의 기도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요 헌신이며 온몸으로 드린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생명들이 죽습니다.”

주기도문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눈물을 읽을 수 있고 또 주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너무 주기도문을 아무렇게 대합니다. 한국 장로교 총회에서는 이제 모든 공적인 모임에서는 마칠 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2)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모든 가르침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뿌리는 비유,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수 없이, 수 없이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3)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삶의 진정 중심이었습니다.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병이 고침을 받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 죄가 용서함 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사건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에게 전부였습니다.

●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셨고 기도하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그렇게도 먼저 구하라고 말씀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 기도를 가장 먼저 드려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천국이고 도대체 무엇이 천당입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어서 왜 우리는 주님의 소망을 뻔히 알면서, 주님의 기도와 부락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만일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었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것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른다면 어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17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육체적인 고통들이 물러가고 정신적인 고통들이, 영적인 고통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가정에서는 웃음이, 사회에서는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모든 장소를,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생명을 위한 나라요 모든 집단을 위한 나라요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뒤에 다가올 세상으로만 생각하는 잘못을 버려야 합니다.

● 우리 찬송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234-249장(통 220-233장)까지입니다. 가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 236장(통223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뵈는 집 - 243장(통224장)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 237장(통226장)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오니 먼바다 건너 있는 집 - 245장(통228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 가서 - 240장(통231장)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 242장(통233장)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고도 놀라운 귀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장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들입니다. 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년에 한 두 번 부를까 말까 하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찬송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온통 죽고 난 뒤의 하나님의 나라 투성이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하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천국을 죽고 나서의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유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다.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말이 이해 안 되시면 돌아가신 분들의 가정에 심방 해 보시거나 그것도 안되면 나중에 죽을 때에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제한된다면,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님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의 기도와 소망은 죽고 난 뒤의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잘못된 관계들로 말미암아, 관계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고 또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만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관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자연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관계가 없이 살지는 못합니다. 이 관계가 단절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To be is to be with!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관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생명 자체가 고통을 받는다” 라는 말입니다.

종종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또는 보증을 서주었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작 고통스러운 것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진정 고통스러운 것은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렇게 서로 의지했는데” 돈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그것이 진정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라도 관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찌 친구 관계뿐이겠습니까? 부부 관계도, 교인 관계도, 나아가서 식구들의 관계도, 관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진정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많고 적은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있고 없고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이나 권력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멸시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또는 무관심하거나 관계를 단절하기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억압하고, 소외시키고.... 서로 차이가 나더라도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서로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차이도 없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천국에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나 안 하나 똑 같다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공산당입니다.

주님께서 오신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 내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살아야 하고 내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 문에 보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부터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무려 6번이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진정 “우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조금 있으면 친교실에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 오늘도 양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침에도 먹을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먹을 것이 있다고 그들의 고통을 모른 채 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무관심의 관계가 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요즈음 맛있는 닭을 먹으려면 시골을 가야 합니다. 요즈음 토종닭은 한 마리에 족히 30불은 줘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닭을 잡는데, 그 때 보면 닭들이 아수라장입니다.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잡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저 닭 살려라 그러면서, 죽어라고 도망잡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잡히면 그 때부터는 순식간에, 순식간에 태도가 돌변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듯이 너무나, 너무나 평화롭게, 기쁘게, 모이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한번씩 하늘을 쳐다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이웃을 보지 못하기에, 아니면 나와 관계된 사람만 보기에 우리는 지금 평화가 참만 하다고, 의가 참만 하다고, 기쁨이 참만 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 문제만 해결되면 잡히지 않은 닭들처럼 그만 하나님의 나라는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만 고통 당합니까? 약한 사람만 고통받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고통받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것도, 남을 억압하는 것도, 남에게 무관심하는 것도 다 큰 고통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흑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흑인을 해방하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코 나는 흑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흑인만이 아니다. 고통을 주는 백인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에게 무관심하면서 마음에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흑인만 본다면 결코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고통받는 흑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백인도 함께 보기에 평화를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흑인도 해방되어야 하지만 고통을 주는 백인도 해방되어야 한다고.

●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잊지 말아

야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탄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물론 나라는 말은 나 자신도 포함되지만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교회, 나의 국가. 어쨌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개입되는 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없고 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집합니다.

유대인들은 수 천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들은 주님을 못박았습니다. 왜요? 이들의 메시아는 전혀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입니까? 당연히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여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제외되어야 합니까?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만을 위한 나라로 고집하는 배타적인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하면 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다 싫어합니다. Justice, peace and Joy. 의와 평강과 기쁨은 좋아하는데 정의와 평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만 등을 돌립니다. 아니, 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느냐? 사회에 관여하느냐? 그렇습니다. 나와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 이렇게도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보셨습니다. 거기에는 관계가 잘못 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고통하고 있고, 생명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서, 창조주를 몰아내고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살기에, 이 땅에는, 이 아름다운 땅에는 말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최악이 있습니다.

오늘도 굶어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더 가지려고 하기에 생명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땅이 사람들의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재물이 내 것이라고 우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예수의 사람들 =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은 사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받을 뿐 아니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가질 뿐 아니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세울 뿐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진정 “우리”의 소중함을 알고 관계의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관계입니다.
명예보다 귀한 것은 관계입니다.
권력보다 귀한 것도 관계입니다.

더불어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함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저도 이 과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떨쳐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제 자신이 이 생각을 하기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과연 나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내 기도와 소망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그리고 교인들은 과연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들은 과연 이 기도를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무리들의 모습으로 등을 돌릴 것인가?
과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는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결코 주님이 말하시는 이 천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생명을 사랑할 필요가 있는가? 내 문제도 어려운데, 내 나라 문제도 어려운데.... 차라리 성도들의 축복을 말하고 영적인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되기를 말하고.. 이러한 말씀이 더 은혜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잘못이라는 말은 결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귀하다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믿는 사람만 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려 내 주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바라볼 때, 이 땅은 한없이 평화로운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한없이 의로운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한없이 부유한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만 바라볼 때 이 땅은 온통 죄만 가득 찬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온통 불의만 가득 찬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온통 눈물만 가득 찬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잘못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생명들이 불의와 전쟁과 울음으로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 우리의 이웃과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을 보아야 합니다.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얼마나 불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평화가 없는 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이나 신앙 또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내 삶도, 교회도, 이 땅도 다 왜곡됩니다. 잘못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바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다 죄로 인해 고통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가를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기에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은,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소망들입니다.

모든 것이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

모든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

아울러 삶에 항상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 소망.

부모들은 자식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나라가 바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도 중요합니까?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생명이 사는 길이고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에 고통이 이렇게도 많은 지요, 왜 이렇게도 삶이 어려운지요, 왜 이렇게도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고통이 이어지는 지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이렇게도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자연은 이렇게도 악하게 변해가는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축복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는 말입니다.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인의 삶이란 이제는 자신을 벗어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잃어버리면 어찌면 짐승과 같은, 풀과 같은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합니다. 들풀과 같은, 공중의 새와 같은 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결코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과연 무어라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 곳이 바로 내가 사모하던 곳입니다. 내가 기도하던 곳입니다.” 그것이 바른 고백일 것입니다.

1-3.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왜 십자가 입니까?”

빌립보서 3:8-10



박원호목사(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3:8-10)

● 십자가 십자가

오늘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얼마 전에는 몇 주 동안 십자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성경공부로, 주일에는 설교말씀으로 전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수요일의 십자가는 머리로 받아들인 십자가였고, 주일 설교는 온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관한 주제만큼은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주제들도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주제들이 모두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주제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왜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만이 자신의 전부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도 십자가를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십자가를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만 이렇게 십자가를 고집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잔인하고 처절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사람을 극도로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나무에 달아놓은 뒤, 모든 피가 다 빠져 나오고, 마지막에는 물을 다 쏟아내기까지 생명이 붙어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사형 제도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노예들에게만 적용했고, 자국민들에게는 결코 허용하지 않은 것만 봐도 십자가 처형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제도였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라는 말조차 입에 담는 것을 터부시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합니까? 신명기 22장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집행되지 않고, 성 밖에서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두려운 것은 십자가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로 다시 사람들의 죄가 번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바벨탑을 쌓는 죄는 짓습니다.

이제는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여기에 매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세상의 모든 노력들은 배설물?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도 기독교는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말은 오직 십자가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은 십자가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심지어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의 지식도, 철학의 지식도, 예술의 지식도, 종교의 지식도, 사회의 지식도, 인간의 지식도 모두가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똥. 똥. 어. 리.' 입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노력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노력 또한 세상이 이 땅의 고통을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한 구원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을 해결하고, 굶주림을 해결하고, 관계의 고통을 해결하고, 사회의 악을 해결하려는 등 모두가 기독교와 같은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고통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비록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들이 헛된 것이라고, 심지어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반대로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 더 많은 결과를 얻지 않았습니까?

근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땅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질병에서 벗어났습니까?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에서 벗어났습니까? 경제가 발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났습니까? 수많은 질병들이 해결되었고,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정치가 발전하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왕정 국가가 무너졌고, 민주주의가 세워졌습니다. 모두가 이 땅에 고통을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모든 노력들을 배설물이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떠난 해가 1984년이었습니다. 불과 25년 전입니다. 그 때만해도 미국과 한국은 너무 차이가 많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첫날 아침을 맞았을 때,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이런 세상도 있는가?" 지금까지 제가 봤던 세상과 달라도 너

무 달랐습니다.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고, 사람들이 그렇게도 아름다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운 경험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겨울 옷 중에서 울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을 사러 슈퍼에 들렀습니다. 슈퍼에 들어가는 순간, 그만 발이 땅에 붙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매장의 규모에 놀랐고, 온갖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식료품, 의복, 운동용품, 가정용품,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유도 수십 종이 진열되어 있었고,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치즈가 한 자리에 있었고, 온갖 종류의 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못지않게 잘 삽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슈퍼마켓이 다를 바 없고, 주유소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좋은 곳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불과 25년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배경에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월남 전쟁에 참여했고, 중동의 건설현장으로, 독일의 탄광과 병원으로 일하러 가고, 온 몸으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부딪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발전은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모든 노력들도 배설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기독교의 소망은 이 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노력도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 고통을 덜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이어야 합니까?

● 왜 십자가인가?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는 결코 세상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합니다. 마땅히 축하합니다.

왜 의사의 손이 필요 없고, 군인들의 충성이 필요 없고, 상인들의 노력이 필요 없겠습니까?

왜 건축가들의 노력이 필요 없겠습니까? 모두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 귀한 것들입니다.

온 세상에 교회만 있다고 해서 세상이 당장 낙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는 결코 사람들의 노력과 세상의 수고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통의 근원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고통의 이유를 말합니다.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힘이 없고, 의지가 없고, 자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과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이유는 진정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이 땅의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결코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해, 이 모든 고통들이 만들어지는 근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근원을 해결하기 전에는 결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나무 잎이 시들어가고, 줄기가 말라가고, 열매가 떨어지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잎을 살려보고, 열매를 살피고, 줄기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계속 나무가 죽어갑니다. 그것은 뿌리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를 고치지 않는 한, 나무는 계속 죽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도 고통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리 겉으로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겉모양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만족하는데 그친다면, 뿌리의 문제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일찍 왔으면, 일찍 병의 근원을 찾아서 해결했으면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병의 근본은 무시하고, 겉으로만 계속 치료하다보니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 근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자신의 존재를 깊이 숨기는 것이요, 더 나아가 자신을 가장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현대인들은 원시인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은 무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일까요?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는 것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생이 일방적으로 신의 사랑을 받자 형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형인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하고,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동생이 사랑을 받습니다. 죽일 마음이 생겼고, 결국 사람이 없는 곳에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시기합니다. 왜 형만이 축복권을 갖느냐고? 왜 동생은 가지면 안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둘 사이에 평생 해결할 수 없는 미움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도 비밀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산 싸움이 벌어지면, 이보다 더 한 일도 일어납니다.

● 문명의 혜택과 죄의 역사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혜택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명이 발달한 만큼 사람의 근본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이려는 마음, 속이는 마음, 미움의 마음이 해결되었습니까? 혹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것은 아닙니까? 이는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 일부러 현대인들을 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세상이 모든 면에서 그 때보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더 악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영덩이 폭탄'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테러단들이 사람의 몸속에 폭탄을 넣고 있다가 폭발시켜서 자신도 죽고, 상대방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살던 곳에서 불과 차로 30분 거리에 KKK단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입니다. 미국 땅에서 흑인이나 동양인들과 같은 유색인종들을 무력으로 몰아내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잔인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흰 두건을 뒤집어쓰고, 밤에 말을 타고, 괴성을 지르며, 사람을 불태워 죽여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잔치로 즐깁니다. 이것이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 가장 평화롭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듯 오늘도 이 땅에 악한 일들이 독버섯처럼 생겨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매일 신문 지상에 나오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고통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남의 문제로만 생각지 마십시오. 이는 여러분 안에서도 얼마든지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도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겪었던 외로움이라는 고통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 무의미, 허무함이라는 고통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피하기를 바라는 죽음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짓들, 음욕, 도둑질은 또 어떠합니까?

이 모두가 죄 때문에 생겨난 고통들입니다.

만약 "죄가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죄가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런 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벌써 해결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는 사람의 근본을 빼앗고,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만물을 파괴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속이고, 온갖 악한 일을 하게 한 뒤, 파멸로 몰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의 생명이 나의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나의 것입니까?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재능은 내가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만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내 생명도 우연히 생긴 것이고, 몸도, 내게 주어진 재능이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거룩한 소망도 단지 우연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레바논의 시인인 카릴 지브란이 쓴 "어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 물었습니다.

"어린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갈망하는

생명 자체의 아들들이요 딸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나왔지,

당신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비록 당신들은

그들과 함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당신들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생각은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자녀들을

육신적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 집을 꿈에서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그들과 같이 되려고 힘쓸지언정,

그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명이란 것은,
뒤로 돌아가지 않으며
어제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당신들은 활과 같아서,
자녀들을 화살처럼 멀리 보내야 합니다.

활을 쏘는 궁사는,
무한의 과녁에 새겨진 표적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굽혀서 그분의 화살들이
멀리 그리고 빨리 날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궁사의 손에,
기쁨으로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듯이,
신실한 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제게는 이미 성인이 된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미술을 전공했고, 둘째 아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미술을 전공한 것은 저나 제 아내와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 모두, 미술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 아들이 신학을 하게 된 것도 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했습니다. 자녀를 키울수록 그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의 자식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들이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나의 생각과 소망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이고, 각각의 생명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생명도, 나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독교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노력을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들은 모두 죄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는 좌절되기도 하고, 잘못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해치는 일에 이용됩니다.

죄가 은밀히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수고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그 수고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인간의 모든 노력을 일컬어 배설물이라고 한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의 과학자 노벨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이 발명품 때문에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지만 그만큼 엄청난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가 만든 다이내마이트가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벨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가 프랑스를 여행하는 동안, 호텔 로비에서 자신에 관한 신문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사망기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욱 충격 받은 것은 그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업가, 인류의 파괴자 노벨이 죽다!" 이로 인해 그는 깊은 절망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발명품은 전쟁에 악용되었지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인류의 평화를 위해 헌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상이 바로 그 위대한 노벨상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땅에 생겨나는 모든 고통의 근원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죄가 사람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사람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지식이나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는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 된 인간의 근본을 영광의 근원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영광스러운 결과로 바꾸어 주십니다.

● 십자가는 관계에 대한 확증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확증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참된 부모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힘과 노력도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많다고, 자신이 만든 법을 지킨다고, 그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쓴다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그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자신을 희생하는 도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자녀를 유괴당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을 듣고 난 후, 사회자는 마지막으로 유괴범에게 하고 싶은 말

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그 때, 한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더니 사회자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을 유괴범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대신, 제 아이를 보호하고 계신 분이라고 불러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유괴당한 자녀를 위해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지위, 명예를 모두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의 말에서 그보다 더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내 자녀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유괴하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모든 모욕을 홀로 당하셨습니다. 벌거벗음의 수치와 날카로운 창과 못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셨고, 조롱과 부끄러움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 영광의 십자가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로마인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요, 유대인에게는 저주의 대상이요, 도덕적인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었던 이 십자가를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용기있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확신이 있었고, 영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세상의 조롱도 들었고, 모욕도 당했고, 핍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자신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혐오하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죄가 스스로를 혐오하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저주로 여기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죄가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꺼리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죄가 스스로를 꺼려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죄의 역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역사, 우리 밖에 있는 죄의 역사가 모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수록 더욱 무너집니다.

이것이 이 땅의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참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길입니다.

성도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4.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주 기도문”

마태복음 6:9-13



박원호목사(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 “주기도문”: 주님의 뜻과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주님의 뜻과 사명을 담은 기도문이고, 성도를 향한 소망이 담긴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당시의 유명한 스승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기도에 담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기도를 드림으로써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겼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무척이나 깊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하기도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묵상할수록 더 깊은 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어렵다”는 말은 기도할수록 주님처럼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와 멀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주기도문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 난 후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우리 자신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 주님의 소망,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은 우리에게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구조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먼저 그 뜻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이 앉아 있고, 피조물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팽개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두고, 사람들이 앉고,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고통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생기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 전에는 결코 이 땅에 고통이 해결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를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당연히 우리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고통을 치료하시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이고 계십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를 때, 이 땅이 바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14장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 평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불의로, 불화로, 슬픔으로 고통하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소망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도 이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르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되고, 우리의 사회도, 나라도, 세상도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은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지역 간의 관계, 교회 간의 관계, 남북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것이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되고, 억압도, 강요가 아닌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 “우리”가 회복되는 나라를 위해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은 결코 우연히 사용된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언어의 습관도 아닙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성도들이 “우리”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모습,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죄가 등장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야 할 우리가 죄 때문에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전혀 반대의 모습을 갖습니다. 남이 웃을 때 내가 울고, 남이 울 때 내가 웃고, 아니면 아무 남의 일에 아무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우리”는 주님의 소망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성령이 임하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

회가 태어납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32)

이제는 자기 재물을 자기 재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모습이 회복된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4:32)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졌고, 청지기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죄의 역사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세웁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 역사하면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를 알고 야단을 치는데 그만 둘 다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한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풀려나고, 날마다 교인들이 늘어가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안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재물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닙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의 역사가 바로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죄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재산은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성도를 속입니다.

그런데 이 때 베드로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모든 교인들이 모인 곳에서, 더구나 젊은 청년들까지 모아놓고 정죄합니다. “왜 성령을 속였느냐?”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들을 책망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이들을 정죄할 때, 그들과 원수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게 된다면 복음전파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덮어버리거나 개인적으로 조용히 불려서 권고하는 것이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과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아나니아의 잘못된 곧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정직하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드러내고 이를 밝힙니다. 베드로는 어떻게든 공동체를 지키려 합니다. 그러자 다시 복음이 왕성하게 흘러났습니다. 그 다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5:11-13)

성령이 역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우리’가 되고,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모습을 갖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식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 양식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굶주린 채 새 날을 맞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밤새 배가 고파 잠을 못 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양식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아울러 우리는 내게 오늘 양식이 있을 때 이에 만족하도록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행여 내가 이틀 분량의 만나를 가짐으로써 나로 인해 굶주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양식이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죄 용서는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함께 해야 하지만, 영적으로도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용서받지 못 하고, 용서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칼 메닝거(Karl Augustus Menninger)라는 세계적인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환자들에게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만 시킨다면 모든 정신병 환자의 75%가 다음 날로 병원을 떠나게 될 것이다. 용서받지 못 하고, 용서하지 못 하는 것은 모든 정신병의 원인이다.”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 용서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한 기도 역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주신 우리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죄악 된 이기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됨을 지키며, 함께 울며, 함께 웃는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또 다시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형제의 기쁨을 시기하며, 형제를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런던 타임지(London Times)에 한동안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사의 마지막에 “What’s Wrong With the World?(세상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는가?)”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을 본 체스터턴(G. K. Chesterton)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신문 편집장에게 이렇게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What’s Wrong with the World? I am.”

세상 모든 문제의 근본은 ‘나’라는, 이기주의라는 뜻입니다.

●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는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권능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영광은 모든 일의 결과를 말합니다.

즉, 이 땅의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까지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이자 소망이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한 번씩 할 기도가 아닙니다. 가끔 생각날 때, 기회가 생겼을 때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호흡과 같이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 짧은 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늘 이 기도를 품으시고, 기도예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5.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아인슈타인의 영적 상상력"

에베소서 4:1-4



박원호목사(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미국 뉴욕에서 약 1시간 반 정도가면 ‘프린스턴(Princeton)’이라는 조그만 동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작지만 무척 예쁜 도시이고, 깨끗한 도시입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곳에는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고, 그 옆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학촌입니다. 다른 대학촌들은 대개 일반 상업지와 섞여서 대학촌 고유의 모습을 잃어버렸지만 프린스턴은 아직 그 모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곳곳마다 ‘아인슈타인’(Einstei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 빵집, 아인슈타인 아이스크림 집, 아인슈타인 찻집, 아인슈타인 옷집... 또 대부분의 가게에 그 분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조그마한 옷 가게는 아예 벽의 한쪽면 전체를 아인슈타인 사진과 물건들로 장식해두었습니다. 그걸 보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이 이곳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르쳤구나!” 그는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살던 집이 대학교 정문에서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1984년에 그 곳에 유학 가서 학교 소개를 받으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아인슈타인의 집이 신학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종종 신학교 안을 거쳐서 집에 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학시절 동안 감사한 것 중의 하나는 지도교수님 덕분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힘든 내용입니다. 물리학은 그동안 제게는 항상 힘든 과목이었고, 지금도 멀리 하고 싶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를 성령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만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적어도 주제만이라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 신앙의 위기: 신앙과 삶의 분리현상

이 주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또는 과제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뉘어진 신앙”입니다. 신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나뉘어져 있고, 교회와 사회가 나뉘어져 있고, 학생들에게는 교회와 학교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 삶에서도 신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신앙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도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회와 학교가 신앙적으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나뉜다는 것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함께 있어야 할 것이 나누어져 있다면 거기에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음 속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다툼도 생기고, 서로 비방하는 일도 생기고, 결국에는 모두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될 줄 알았고, 마음에 평화도 찾아오고, 가정이나 직장에도 기쁨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갈등도 없을 줄 알았고, 고통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새로운 갈등이 생겼습니다. 좀처럼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삶과 신앙의 요구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큰 갈등 없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면 되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를 수가 없고, 내가 좋아하던 것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 자신은 너무나 좋은 직장에 다녔는데 수입도 좋고, 하는 일도 힘들지 않고 재미있어서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안전도 보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직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좋은 직장을 아예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분의 직장이 바로 라스베가스 도박장이었다고 합니다. 도박장에는 시계가 없으니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 산소를 계속 공급해주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또 마피아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 절대 안전한 지역인 것입니다. 과연 이 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위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위기”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그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늑대 소년의 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무엇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인의 숫자, 기도, 설교 등 위기의 원인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장한다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잘 한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당연히 위기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바뀌 말해서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 함께 가지 않고, 세상의 한 가운데 서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한 가운데에서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등대가 되어서 세상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힘을 잃어버리면 위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적어도 초창기에는 역사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새롭게 시작될 때 교회가 교육의 분야를 시작했습니다. 의학, 예술 분야는 물론 나라의 독립을 위한 운동까지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애국자였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중앙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제 사회의 외곽에 있는 기관이요, 성 밖에 있는 기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였고, 말씀의 권세를 주셨고, 영과 육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세상과 함께해야 하고,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소망은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집이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라는 사명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사역지이고, 그곳에서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훈련하는 목적은 세상으로 나가서 바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오늘날의 시대정신 : 과학 정신

그렇다면 무엇이 이 시대를 이끌어갑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정신은 “과학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과학의 정신입니다. 이제 “과학”이라는 과목은 여러 과목 가운데 한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 전체를 이끌어가는 정신입니다. 모든 분야가 과학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철학, 문학, 경제 등 모든 것이 과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종종 텔레비전을 보면 논란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해로울까? 아닐까?” 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묻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에게도 묻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묻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질문합니다. 그런 다음 제일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실험실입니다. 거기에서 한 연구원이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이것으로써 모든 논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맞다”고 인정하면 그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분석적이어야 하고,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부터 대학의 마지막 과정까지 이것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분리의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분리의 논리입니다. 주체와 객체를 분리합니다. 논리와 감정을 분리합니다. 정신과 육체를 분리합니다. 과학과 신학을 분리합니다. 사람과 자연을 분리합니다. 물질도 마지막까지 분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는 점점 분리될 수밖에 없고 삶이 분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면 잘못이라고, 오류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주관적이면 믿을 수 없습니다. 감정적이면 믿을 수 없습니다. 영적이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회가 자꾸 메말라가고, 비판적이 되어가고, 불신이 깊어져 갑니다. 그러면 무시당한 쪽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과학은 자연을 객체로 바라봅니다. 그저 하나의 대상입니다. 영어로 대상을 ‘Object’라고 하는데 그 대상은 분석할 “대상(object)”이요, 탐구할 “대상(object)”이요, 실험할 “대상(object)”입니다. 나 ‘밖에 있는’ 대상입니다. 대상이기 때문에 물건과 같습니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실컷 이용했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하나님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자연이 그저 하나의 물건과 같습니다. 내가 더 많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삶이 더 편리하면 됩니다. 자연은 오로지 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얼마나 편리하냐만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오늘날 자연이 심각하게 황폐하게 되었고, 자연이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를 인격으로 대해주지 않느냐?”

“왜 나를 생명의 동반자로 대해주지 않느냐?”

“왜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느냐?”

이제는 물도 사 먹어야 하고, 공기도 사 마셔야 합니다. 마땅히 은총으로 주어진 것들, 값없이 가져야 할 것들을 이제는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오해해서 안 될 것은 과학이 잘못이라거나 혹은 과학 자체를 배척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과학은 너무나 소중한 유산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류가 얼마나 혜택을 많이 입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미신들이 물러갔고, 수많은 병들이 정복됐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처음 과학을 시작하신 분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배척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까닭에 몇 백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핵으로 인한 인류 멸절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매년 1500만명의 어린이가 죽습니다. 5억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습니다. 인류의 35퍼센트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고, 과학자와 기술자의 절반이 무기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위기(인구의 과밀, 산업 기술)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 인플레, 대량 실업, 분배의 불균등, 에너지 고갈, 테러... 모두가 이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타당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 설교의 메시지들이 과학과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설교의 결론을 말하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을 공격합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오직 성경만 따르라고 말합니다. 과학이고 뭐고 성경과 어긋나면 절대로 따라선 안 된다고, 그러면서 과학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교인들은 중간에 끼어서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과학의 탓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건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권세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오늘의 현실이 힘들더라도 미래의 완성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태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소망을 심어야 하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과학의 등장

우리는 지난 몇 십년 동안 참으로 놀라운 사건들을 목격했습니다. 곳곳에 새로운 시

대가 도래하는 징조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의 흑인 차별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버스도 함께 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나라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의 인권 운동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그 나라에도 생명이 존중받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자연이 회복되는 역사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인 구달(Jane Goodall)이라는 분이 쓴 『희망의 자연』(Hope for Animals and Their World: How Endangered Species Are Being Rescued from the Brink)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출간되었습니다. 평생을 자연 회복을 위해 힘쓰신 분입니다. 이 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연의 황폐됨도 보고, 아울러서 자연이 회복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책은 황폐됨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분은 결코 절망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개인도 있고, 공동체도 있습니다. 국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런던의 테임즈 강과 미국 수도의 포토맥 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해도 이 강들은 하수구처럼 악취를 풍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정화되었고, 동식물 대부분이 돌아왔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개방되면서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강들의 3분의 2는 식수나 농업용으로 이용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습니다. 양쯔강 돌고래는 멸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고, 야생 보호 구역을 지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환경 교육용 미디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지구의 희망(Earth's Hope)”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중국의 북서부에 있는 황토 고원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국토에 맞먹는 거대한 지역인 이 지역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 모르고, 어쩌다 일어난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결코 예사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과학 자체가 새롭게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적 과학은 철저하게 분리하는 과학이었습니다. 물질을 분리하고, 분리하고, 또 분리하면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데까지 갔습니다.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그리고 다시 원자핵이 있고, 그 안에는 중성자가 있고 다시 양성자가 있고, 그 주위는 전자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수많은 부품들로 구성된 기계,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스스로 돌아가도록 법칙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멀리 계시다가 한 번씩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 자연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꾸신다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이제 지구를 돌보는 것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사람들이 법칙을 찾아서 그 법칙에 따라서 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부터 과학자들은 모든 물건을 다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혜택도 주어졌지만, 결국에는 자연 황폐라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가 시작되면서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우주는 결코 기계가 아니라는 것, 우주는 하나의 몸과 같은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우주 안의 모든 존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돕고 살아갑니다. 한 쪽이 어려움을 당하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결코 나만 살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인간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살겠다고 자연을 황폐시키면 대신 인간의 삶도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분이 계시고 인간은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원자 구조를 연구하면서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자 주위에 전자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 전자는 그저 하나의 알갱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 우리가 지금 보는 딱딱한 물건들은 모두가 자체 안에서 알갱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한편을 어렵게 하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래 전에 시애틀에 있는 거대한 다리가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다리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바람이 없는데도 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학자들이 조사를 한 뒤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람의 파장과 다리 자체의 파장이 우연히 일치하면서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고, 그러면서 다리 자체가 파괴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를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파괴로 설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했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매일 성을 돌자 성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자 그 소리와 성 자체의 파동과 일치되면서 그 엄청난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우주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과 따로 떨어져 있는 객체도 아닙니다. 우주와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결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입니다. 당연히 그 우주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성령의 역사: 분리에서 하나됨으로

다시 아인슈타인에게도 돌아가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879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부모님으로부터 유대교를 배웠습니다. 특히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 음악을 좋아했고, 바이올린 연주도 뛰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도 작곡합니다. 훗날 물리학자로서 대학에서 교수로 사역을 했지만 나치의 박해로 인해 결국에는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이 때 이 분이 기독교를 만나게 되고, 본격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접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재직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들과 깊은 교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분의 고백입니다. “독일에 있을 동안 진리를 사랑한다던 대학교의 어느 누구도 나치를 반대하지 않았다. 어떤 신문도 반대하지 않았다. 오직 기독교회만 반대했다. 이전에 나는 한 번도 기독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지적인 진리와 도덕적인 자유를 위한 교회의 용기와 인내에 사랑과 존경을 갖는다. 한때 나는 교회를 경멸했지만, 지금은 찬양한다.”

그리고 다음의 글은 1933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아인슈타인이 강의한 내용입니다. “과학은 진리와 이해를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에 의해 창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원천은 종교의 영역으로부터 다가온다. 여기에 신앙이 속해 있다. 존재의 세상에 유효한 규칙들이란 이성적이며, 이성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심오한 신앙 없는 순수한 과학자를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러한 명제를 남깁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지체부자유자요, 과학 없는 종교는 시각 장애인이다.”
(Science without Religion is lame, Religion without Science is blind.)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과학자의 모든 열정과 헌신은 신앙에서 다가오는 것이며, 과학은 결코 종교와 대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리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과학자는 신앙인이어야 하고, 진정한 신앙인 역시 과학자이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습니다.”

(God does not play dice.)

“하나님은 결코 소매에 심장을 달지 않습니다.”

(God does not wear his heart on his sleeve.)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시지만 결코 악한 분이 아닙니다.”

(God is subtle but not malicious.)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물의 운행은 결코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이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필요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운행 방식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본질적으로 우연인 것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결코 우리 옷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쉽게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의로 숨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표면에 나타나는 일들은 복잡하고 곤혹스럽지만, 내재된 질서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과학은 단지 기술이나 방법만 묻지 말고, 근본적인 목적을 물어야 합니다. 과학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현상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아인슈타인 이후로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모든 만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돕고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결코 우주는 우연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성령께서 이 땅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가장 갈등이 심했던 과학과 신앙의 갈등이 해결되고, 이를 통해 모든 사회를 회복하시고 있는 성령의 역사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학과 신학이 화해하면 이제 모든 분야들, 철학, 문학, 예술, 경제, 정치도 하나님과 화해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화해의 역사요, 관계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서로 갈등 간에 있는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분리된 관계를 연결시키시고, 그리고 서로를 하나되게 하십니다. 이제 둘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함으로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갑니다.

주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혼돈되거나 바꾸거나, 나누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며 늘 서로를 존중하며,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룹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만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와 다르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방식대로 따라오기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죽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남을 억압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면서 남과 함께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역사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겹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4:1-3)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요, 소망 안에서 하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결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무시하지도 않겠습니다. 결코 내가 가진 생각만 옳다고 교만하지도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교회도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되 성령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를 위해 서로 용서하게 하옵시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령 하나님, 늘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1-6.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에베소서 4:13-16



박원호목사(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 불완전에서 완전을 향해 노력하는 교회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맡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일들과는 다릅니다. 먼저 돈을 받지 않는데도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돈을 내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을 느끼는 것도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는 분들에게 교회의 본질에 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 역시 사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교회는 언제라도 잘못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이 두 가지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데서 생겨납니다. 교회는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흠이 없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의 잘못은 교회 자체를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절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거기로부터 교만이 생겨나고, 바벨탑이 생겨나고, 죄악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나 교회들은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바르게 하려고 힘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회를 ‘방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곳은 방주이니 여기에만 들어오면 구원받고 천국 생활을 한다.” 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좋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오면 어떨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별의별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보다 더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이는 교회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온갖 짐승들이 소리지르고, 배설물을 내고, 온통 냄새가 납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배멀미를 하는 것입니다. 배가 사정없이 흔들리면 때로는 차라리 나가서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가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입니다. 교회도 결코 완전한 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온갖 세상의 추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가지 않는 것은 이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교회를 싫어한다거나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충실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할 교회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할 일은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일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바른 모습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더 나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 교회의 정신입니다.

지나간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교회가 항상 성경이 말하는 모습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잘못된 모습을 가졌던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가깝게는 여성의 안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멀리 보면 노예 문제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교회는 가장 적극적으로 노예 제도를 지지했습니다. 또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기관이기보다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기관이었습니다.

● 성경적 교회: "몸"으로서의 교회

다음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할 때 성경에 근거해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교회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성경에 따라서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생겨납니다. 성경을 벗어나게 되니 잘못된 이해를 하고, 그에 따라 교회를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은유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은유는 바로 “몸”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① 먼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모든 성도는 몸의 지체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 말하기는 쉽지만,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찬송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코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장로도 아니며, 평신도 역시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것 때문입니다.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림인식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납니다. 6.25 전쟁 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없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고, 심한 경우는 하반신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두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반신과 하반신이 모두 있고,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다고 할지라도 머리가 없으면 죽습니다.

② 교회는 유기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힘써야 할 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를 영어로 말할 때 ‘organism’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지체가 서로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또 모든 지체가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말이고 어떤 지체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지체라도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참된 사랑이 있고, 참된 평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 인간됨이 있습니다. 결코 사회적 지위나 학력이나 돈으로 따지지 않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인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가 돌봄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천하다고 취급되던 지체가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억눌린 지체가 생명을 찾습니다. 교회의 가장 위험한 적은 ‘organism’이 되지 않고 ‘organization’이 되는 것입니다. organization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더 이상 교회는 사랑과 인격의 공동체가 아니라 일을 이루어가는 ‘조직’이 되어 버립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협력이 아니라 경쟁이 일어납니다. 인격은 거의 소용이 없게 됩니다. 심지어 전도하는 것도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라는 조직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루엘 하우(Reuel L. Howe)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랑하려고 만드셨고, ‘물건’은 이용하려고 만드셨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대로 ‘사람’을 이용하고, ‘물건’을 사랑한다.”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진정한 유기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사랑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결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주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남을 인정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기독교교육에서는 ‘그룹 역학’ 이라고 합니다. 기본 가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조직만 만들어 놓고 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아가서 몸은 결코 서로를 높다, 낮다 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모른다고 하거나 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함께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이고, 또한 사역자들의 사명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는 이기주의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자는 섬김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섬김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섬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8, 막 10:4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직위가 올라갈수록 섬김 받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국에서 장관(minister)이라는 말은 ‘섬긴다’ 라는 뜻인데, 한국에서 장관이라는 말을 쓸 때는 ‘긴 장, 어른 장(長)’ 자입니다.

③ 또 하나의 교회의 본질은 생명성입니다.

교회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같은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시대로부터 분리되는 현상 때문입니다. 마치 구원 클럽 같은 모양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고통에 대해 복음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초대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와 똑같이 만들자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대에 따라 새로운 교회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 교회와 나: 나의 인격과 신앙, 그리고 교회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교회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교회 일을 행하는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람이 싫으면 그만 하기 싫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관해 불평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사가 싫다는 것입니다. 과목은 좋아도 교사가 싫은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맡아 섬기는 사람이 잘못되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기에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대한 평가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가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사역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이 순간부터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많은 경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자꾸 남에게 화살이 날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을 깊이 알면 오히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할 때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유독 애를 먹었습니다. 개인이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변해라.” 였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변해야 그 사람이 변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참된 제자가 무엇입니까? 묵묵히 섬김의 일을 할 뿐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남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나의 잘못임을 발견하는 성숙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공동체의 의미"

누가복음 13:6-9



박원호 목사(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 아이티의 재난과 고통

2010년 1월 12일 오후 4시 53분 9초, 아이티(Haiti)에서 규모 7.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도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 지진으로 인해 수도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사는 집이나 수도 중심지에 있는 가장 큰 성당까지 어찌면 그렇게도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는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서민들의 집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어려움을 이겨낼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매일 소식을 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의 안타까움은 더해갔습니다.

타임지(TIME)는 이 재난을 다루면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비극은 가장 견디기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의 인구 400만 중에서 300만이 지진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티는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고, 영양 부족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며, 국민의 절반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없는 곳입니다. 기사에 적힌 아이티 대통령 부인의 침통한 말입니다. “나는 시체 위로 걷고 있습니다. ... 병원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아이티에서 일어난 지진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지역에는 지난 500년 동안 십여 차례의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1692년에는 자메이카의 포트 로열(Port Royal)이라는 도시가 지진 때문에 완전히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지진의 피해는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2010년의 아이티 지진을 역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보았습니다. 2004년 쓰나미(Tsunami) 재앙 때 구조작업에 참가했던 분들에 따르면 그 때는 바닷물이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서 그나마 복구가 수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티 지진의 경우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건물을 복구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먼저 남아있는 잔해들부터 다 치워야 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3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억 달러의 구호금이 모아졌고, 수많은 나라들이 구호팀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구호품이 도착해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구호품을 나눌 길도 없고, 전화도 모두 불통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웃 나라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기름을 빌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비롯한 많은 한국 교회들이 특별헌금으로 고난 받는 아이티의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

신학의 주제 중에서 신정론(Theodicy)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역사보다 오래된 주제입니다.

기원전 300년 경, 헬라의 철학자 에피쿠레스(Epicurus, B.C. 341- 270)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다. 그 분은 선하신 분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다. 만일 신이 악을 제거할 수 없다면 신은 전능한 것이 아니다. 만일 악을 제거할 수는 있으나 하지 않는다면 그 분은 선한 분일지는 몰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 즉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제는 최근에 와서 다시 심각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바르트 에르만(Bart D. Ehrman)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답하지 못하는가?-왜 우리가 고난받는가?(God’s Problem: How the Bible Fails to Answer Our Most Important Question-Why We Suffer) 바르트 에르만은 그 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수 세기 동안 신학자들은 악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악이란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다. 악이란 것은 사람이 서로에게 행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다. 이를 도덕적인 악이라 말한다. 도덕적인 악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도덕적인 자주성을 허락한 대가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가 도덕적인 악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라면 자연적인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에르만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의 경우를 언급합니다. “중국의 지진, 2004년 동남아시아의 쓰나미 사건과 같은 사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C. S. 루이스(C. S. Lewis)는 자연재해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연재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단결하게 하고, 생존자들에게는 삶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며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이에 대해 에르만이 반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가? 아무리 목적이 고상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엄청난 재난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가?” 이러한 질문 끝에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2003년에 유명한 고생물학자 피터 월드(Peter D. Ward)와 천문학자 도널드 브라운리(Donald Brownlee)는 『Rare Earth』라는 책을 썼습니다. “특이한 지구”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 땅에 지진이나 해일,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은 “판구조”의 결과라고 합니다. 판 구조론(Plate Tectonics)이라는, 대륙 이동을 설명하는 지질학 이론에 의하면 지구표면 아래에는 움직이는 거대한 판들이 열 개 이상 있는데 이 판은 지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산이나 대륙이 생겨날 수 있고, 사람과 같은 포유류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판이 없다면 지구에는 단순한 생물만 살아갈 수 있을 뿐이고, 사람과 같은 포유류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판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판은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사람들은 다시금 반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지구를 만드셨느냐? 판을 만드신다 해도 자연 재앙이 없는 지구를 만들지는 못하시느냐?” 오랜 세월동안 끊임없이 지속되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신앙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 비유 속에 담긴 가르침 -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감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도를 생산하며 살았는데 한 해는 종들을 시켜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의 판단에는 포도원의 땅이 좋으니까 이 땅에 무화과나무를 함께 심으면 무화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후 1년이 지나고 주인이 포도원에 돌아와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해 심었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혔느냐?”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제법 자랐습니다. 줄기도 굵어졌고,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두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올해는 열매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종을 불렀습니다.

“올해는 열매가 많이 맺혔느냐?” 하지만 여전히 열매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종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런데 셋째 해에도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올해도 열매가 없으니 내가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겠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자 종들이 사정을 했습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비유입니다. 특별한 사건 때문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에 반역을 도모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아마도 몇몇 갈릴리 사람들이 비밀 결사단을 만들어서 로마에 반역하려고 했다가 그만 사전에 발각이 되어서 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빌라도는 그들의 피를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눅 13:2) 그러면서 또 다른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이란 곳에서 망대가 무너져 예루살렘 사람 열여덟 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눅 13:4-5)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주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 지역 출신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며, 소외된 지역입니다. 반역이 많이 일어난 곳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못살고 억압받는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 중심 도시이고 모든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모든 경제의 중심이요, 권력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는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 것은 이들의 죄 때문이 아닌가? 이들이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 이러한 관점의 이면에는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자신들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 않은 것은 우리는 죄가 없거나 아니면 죄가 덜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 사건을 주님께 보고를 드린 것은 은연중에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이들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눅13:3,5)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결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도 다 죄인이다. 이 사건은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사건은 더욱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죄인이요, 너희도 망할 수 있다.” 는 뜻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사건을 보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둘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래서 이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의 원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를 원하시기에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생명이 죽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느 곳에도 인간의 죽음을 목표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목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모두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장례식에서 듣게 되는 고통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위함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뜻을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실 것입니다.” 때로 이런 말이 얼마나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의 배후에는 죽음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죽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뜻이 있어서 내 자식을 데리고 가십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가십니까? 내 아내를 데리고 가십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묻게 합니다. 동시에 이 말에는 자신들의 의로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당신처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을 잃은 분들을 위로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저 고통에 함께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 고난을 통한 하나님 이해

C. S. 루이스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는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함께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시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통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사고와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고통의 두 가지 주된 원인입니다. 이것들이 세상에 고통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가질 질문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집어삼킨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고통을 잔잔케 하시도록 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기보다는 소망 가운데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벽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어떻게 우리 삶을 회복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이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과 답을 쌓고, 고통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요, 돌보시는 분이요, 회개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든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품기를 바라는 분이요,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이요,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아이티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잘못했으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지.’ 표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생명을 죽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 3:10)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야 미안하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이제 내가 마음을 돌이켜 너희들을 고통에서 구해주마. 너희들이 이곳에서 노예로 고통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다. 이제 너희들을 구해주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먼저 다가와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이들에게 고통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 ‘그들의 고통’과 나

본문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관해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이티 지진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무화과나무이고, 예루살렘은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그 곳에 나라의 수도도 세웠고, 하나님의 성전도 세웠습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왕들도 세웠습니다. 높은 곳에 자리했기 때문에 기후도 어느 곳보다 좋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축복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곳에 갈릴리 사람들도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너무나 못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누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서로 땅을 나누고, 신앙도 나누고, 교육도 나누기를 바라셨습니다. 아울러 함께 살 때 포도나무의 축복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과일은 함께 자랄 때 더 건강하게 자라고, 더 풍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살기에 예루살렘 포도원은 너무나 높은 곳이었습니다. 집값도 너무 비싸고, 생활비도 너무 비싸고, 모든 것이 비쌌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조금도 자기의 것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화과나무가 심겨지는 것을 심히 싫어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게다가 무화과나무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거부했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한 햇빛도 있어야 하고, 충분한 공간, 충분한 물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름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땅도 주지 않았고, 거름도 주지 않았습니다. 포도 넝쿨이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들은 햇빛도 받지 못했습니다. 땅이 좁아서 뿌리가 뻗어가지 못했습니다. 포도나무 넝쿨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맺힐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한 해를 기다렸고, 두 해, 세 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주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친히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겠다는 주인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인이 직접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겠다는 말입니까? 무화과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종을 시켜 찍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주인이 직접 찍어버리겠다는 말은 분노의 표현입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다급해졌습니다. “이제라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아이티의 지진을 보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이런 곳이 있고, 이렇게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억압당하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온통 우리 자신만 잘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화려한 삶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동안 갈릴리 사람들의 삶은 더 고통스러워져 갔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길은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의 것이 나가지 못하게 높이 쌓았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그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전히 소똥으로 집을 짓고, 가축을 키우며 살고, 일부다처제의 성행으로 10대의

어린 아이들이 60대와 결혼해서 삽니다. 또 약을 얻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50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수없이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90년대 초에 제가 가족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살 때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물 문제였습니다. 동네에 양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만 고장이 나서 도저히 물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건기였기 때문에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 누군가가 혹시 집 뒤편에 물이 있을지 모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비상용으로 비가 오는 기간 동안 드럼통에 물을 받아 둔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곧장 집 뒤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집 뒤에 물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저 정도면, 아껴쓰면 일주일엔 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드럼통에 물이 없을까봐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럼통을 잡는 순간, 묵직한 느낌으로 봐서 물로 가득 차 있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럼통의 뚜껑을 여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그 안에 물이 있기는 했지만 거미, 모기, 파리 등 온갖 벌레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 위로 약 10센티미터 정도는 죽은 벌레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얼마간 그 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매일 그 물을 밤새 끓인 다음 마셨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음식을 흥청망청 버리고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속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속한 나라들은 철저하게 갈릴리에 속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그들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아이티의 지진을 통해 진정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혹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교만은 없습니까? 이들을 돕는 것은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오로지 나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갈릴리 사람들이 자랄 수 있도록 땅도 주지 않았고, 거름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바른 모습입니까? 과연 우리만 잘 살려고 한다고 잘 살아집니까? 잘못된 사실이 아닙니까?

그레이하운드(Greyhound)라는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개 중에서도 가장 빨리 달리는 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사슴이나 토끼 등을 사냥하기 위해 데리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경주견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경주장에는 개들이 달리는 트랙이 있는데, 그 안쪽에는 흥미롭게도 토끼들이 달리는 트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토

끼들이 아니라 토끼 인형들입니다. 개들을 빨리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안쪽에 있는 토끼 인형들을 전속력으로 달리게 합니다. 그러면 개들은 빨리 달리는 토끼 인형을 따라 함께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늙은 그레이하운드가 더 이상 경주를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요즘은 왜 경주에 참가하지 않니? 나이가 많아서?”

“아니요. 지금도 얼마든지 뛸 수 있어요.”

“그러면 성적이 좋지 않아서?”

“아니요. 제 덕분에 주인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혹시 주인이 너를 학대하니?”

“아니요. 경주 기간에는 더 잘해줘요.”

“어딘가를 다쳤니?”

“아니요.”

“그렇다면 이유가 뭐야?”

“내가 스스로 그만 뛴어요.”

“왜?”

“토끼를 쫓아서 수없이 달렸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쫓던 토끼는 가짜였어요. 그래서 그만 뛴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가짜 토끼를 따라 달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만 잘 살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의 가짜 토끼입니다. 아이티의 지진은 단순히 지형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C. S. 루이스의 말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서로 단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 떨어져 단절된 채로 살았던 생명들, 그동안 높은 담을 쌓으며 소외시켰던 갈릴리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품어야 하고, 함께 살아야 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망대를 지을 때 낮은 쪽이 무너지면 당연히 높은 쪽도 함께 무너집니다. 낮은 쪽이 무너져도 높은 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높은 쪽이 든든히 서려면 낮은 쪽도 든든히 서야 합니다.

아이티가 어려움을 당하자 강대국들은 서로 앞다투어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왜 군대를 파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티에서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서로 어느 나라가 아이티를 점령하려고 한다는 비난이 들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어려울 때 군대를 보내는 것은 당연히 그 곳의 치안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털끝만큼의 욕심 때문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는 그 나라 국민들의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가 그들의 이익을 가로챌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없을지라도 그들의 땅을 점령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이웃이 잘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아이티와 같은 나라가 한 나라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티의 재난은 그들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려움입니다. 아이티 지진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온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태 속에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

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리를 도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깊이 다짐해야 합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복지사역들,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사역, 새터민들을 위한 사역, 호스피스 사역 등을 통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동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일에는 우리의 진실된 신앙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고 회개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제한했습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했습니다. 이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제한했습니다. 우리만 가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제한했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축복이라고 고집했습니다. 이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 제한했습니다. 우리만 살아야 할 세상으로 독점했습니다. 이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모든 거짓 토끼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이러한 회개와 결단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들을 더욱 불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며, 그분의 사랑은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이며, 그분이 주신 축복은 우리 모두를 위한 축복이요, 그분이 돌보는 세상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존 돈(John Donne)의 시 가운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For Whom the Bell Tolls) 라는 시가 있습니다. 헤밍웨이의 소설에도 인용된 시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섬이 아니며 결코 홀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만일 바닷물로 인해 이곳의 흙덩이가 씻겨 내려가면

유럽이라는 거대한 대륙은 작아질 것이며,

모래톱이라도 마찬가지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대들의 친구들이나 그대 자신의 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그 누구의 죽음이든, 나를 씻어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십시오.

“종은 당신을 위하여 울립니다.”

왜 아이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셨습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고난의 길입니다. 연약한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아이티의 사람들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1-8.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교제

"가슴 벅찬 화목제의 삶"

레위기 3:1-5



박원호 목사(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었고, 온 힘으로 찬송하고 싶었고, 온 정성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가슴 벅찬 화목제의 삶”이라고 붙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한 감격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감격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켄물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3:1-5)

● 아름다운 관계의 제사, 화목제

흔히 우리들은 어떤 물건이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을 남에게 말하고 싶을 때 종종 그것만이 가진 특별한 모습들을 말합니다. “정말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화목제가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제사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색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예물을 먹는 일에 모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물론이고 함께한 가족들도, 친구들도, 심지어는 이웃들도 불러와서 함께 예물을 나눠 먹습니다. 음식이 있는 제사요, 교제가 있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요즘과는 비할 수 없는 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동료가 되겠습니다.” “서로 화목하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혹시 관계가 어려웠으면 화해하고,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면 알아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나누는 자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실천되는 곳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관계가 맺어지고, 회복되고, 깊어지는 것이 바로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관계가 맺어지는 곳, 관계가 축복을 받는 곳, 관계가 풍성해지는 곳, 하나님의 용서가 실천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이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말씀이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실 만큼(마 11:19, 눅 7:34) 식사를 중요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비난할 빌미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이나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화목제의 자리, 이 잔치는 차별이 없는 잔치입니다. 이 자리에는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고, 친척도 참여할 수 있고, 이방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화목제는 제물에도 암수의 구별이 없고, 누룩을 넣은 빵도 사용하도록 합니다. 먹는 장소도 소제처럼 성소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성소 밖에서 먹도록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단순히 ‘음식을 먹는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자리는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먼저 그 자리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처음 만난 분들과도 교제하고 관계가 서먹해진 분들과 다시 가까워지는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친교하며 음식을 나누는 것에는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친히 식사를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나서 한 명씩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찬식을 대하면서 참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앞으로 다가올 천국 잔치도 미리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볼 때 화목제사가 얼마나 축복된 제사인 지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고, 몰랐던 사람들이 서로 알게 되는 곳이며, 서로 친구가 되고 형제와 자매가 되는 곳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성도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공동체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함께 모여 교제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이 어디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감격스러운 사실은 그 자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알면 그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요,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흠어졌고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죽이며 완전히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녀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흠어진 자녀들, 원수가 되었던 자녀들을 불러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찾아 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 감사와 헌신의 제사, 화목제

레위기 7장 11절 이하에는 화목제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오면서, 이 제사가 근본적으로 감사와 서원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1-16절)

화목제에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을 제거해서 불태움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입니다.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레 3: 3-5)

의사 선생님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름 중에서 내장에 붙은 기름과 근육에 붙은 기름이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았더니 그분의 말씀이 근육에 붙은 기름은 비교적 좋은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근육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런데 내장에 붙은 기름은 아주 질이 좋지 않은 기름이라고 합니다. 배가 나온 사람들은 내장에 기름이 끼어있는 사람들인데 내장에 붙은 기름은 질기기 때문에 떼어내기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학 전문 지식이 없어도 내장에 있는 기름이 좋지 않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이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옛날부터 하나님은 기름이 나쁜다는 것을 아셔서 기름을 골라내게 하시고, 나쁜 기름을 떼어서 불사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자신은 나쁜 것을 먹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 생각일 뿐이고,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데렉 티드발(Derek Tidball)이라는 레위기 학자에 따르면 그러한 생각은 건강의 관점에서 본 현대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성경적으로는 그 반대라고 해석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축복이요, 다른 하나는 힘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을 보시면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기름짐’은 ‘fat’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동물의 내장에 붙은 기름을 말하는 것으로 축복과 번성함을 상징합니다. 아울러 그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내장

에서 떼어낸 기름을 제사장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태우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아울러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능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며 온전히 헌신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 풍성한 나눔의 제사, 화목제

화목제 안에는 감동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감사와 헌신을 예물로 드리면서 가족과 나누고 이웃과 함께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화목제의 예물은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 그리고 염소입니다. 다른 제사에서 볼 수 있는 새나 비둘기는 쓰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무 작은 예물들은 나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예물은 이웃과 나누되 풍성히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와 서원을 드릴 때 반드시 예물을 드려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감사하며 이를 모든 백성들과 함께 풍성함으로 나누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합니다. 예물로 감사하는 것은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 풍성한 예물로 감사와 함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충성되다 여겨주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사명을 위해 바쳐지는 삶입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헌신합니다. 이러한 예물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감사이고, 진정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던 어느 여름에 시애틀에서 온 소포를 하나 받았습니다. 익일배달(Overnight service)로 보낸 것인데 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고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시애틀에서 체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인터넷으로 늘 제 설교를 들으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리가 막 익었기에 보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도 그 뒤부터는 고마운 분에게 우편으로 선물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예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경험했습니다.

● 살롬의 미래를 기대하는 제사, 화목제

화목제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입니다. “Peace Offering”이라고도 하고, “Fellowship Offering”이라고도 하고, “Communion

Offering”이라고도 하고, “Sacred Offering of Greeting”이라고도 하고, “An Offering of Well-being”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모두 “shalom”(shalom)에서 왔습니다. 화목제는 shalom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하는 제사입니다.

shalom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생명들과 하나님이 화평하고,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고, 사람과 자연이 화평하고 ... 더 이상 갈등도, 고통도, 시기도 없는 상태가 shalom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그 처음 모습이 shalom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경험했고, 이 소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소망의 사명을 위해 헌신합니다.

번제를 과거의 제사라고 말하고, 소제를 현재의 제사라고 말한다면, 화목제는 미래의 제사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미래의 shalom에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shalom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하틀리(Hartley)라는 신학자는 화목제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 바로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주인과 종,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가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날마다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무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2000년 전에 뿌렸던 그 소망의 씨앗이 온 땅에 전파되었고 이제는 이 땅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들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제사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제사이고 성도들은 이 거룩한 축복과 사명에 초대받은 손님들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원했던 은총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온전히 경험했던 그 은총이요,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값없이 참여한 은총입니다. 성도들은 복되고 존귀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 참으로 가슴 벅찬 자리가 아닙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복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가슴이 벅찬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모든 제사의 클라이맥스요, 완성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화목제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서 주의 풍성한 은총에 가슴 벅찬 감격으로 찬송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길을 일러주신 하나님,
 나를 충성되다 여기셔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가슴 벅찬 감사와 서원으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제 이 제사를 온전케 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됨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영이 기뻐 손잡고 춤추는 곳이 되게 하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살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목제의 제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총의 제사요, 축복의 제사요, 화평의 제사입니다. 이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가슴 벅찬 감격으로 찬송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교우들을 가슴 벅찬 감격으로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화평을 가슴 벅찬 소망으로 전파하십시오.

1-9. 하나님 나라의 기초

“말씀의 집을 짓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전서 5:15-22



박원호 목사(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해야 하는 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주요하게 살펴볼 구절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에서 ‘멸시하다’는 말은 무척 강한 표현입니다. 그냥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보기조차 싫다’, ‘상대하기도 싫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멸시하지 말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언은 성령의 대표적인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언은 성령의 은사이기에 멸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오늘 말씀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방언이나 병 고침, 능력 행함 등등 다른 은사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언의 은사를 가리켜 멸시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위낙 앞에 나오는 구절이 좋은 내용이어서 곧바로 이어지는 이 구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오늘날에는 예언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지나다가 종종 점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말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말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의미로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이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구절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예언”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 은사들 가운데 한 은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점치는 것과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언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앞에서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따르면, 예언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침, 능력 행함 다음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성령의 은사가운데서 첫 번째 은사로 말씀의 은사로 삼았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직분자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항상 말씀을 대하는 직분자를 제일 처음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결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앞날을 점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사역이란 바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성경 속의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촉구했고, 그 가운데에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당연히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에 대한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대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성령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함께 가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갑자기 깊은 애통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당하고 있구나!”

오늘 말씀은 종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어떻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멸시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한 번은 뉴스에서 “호텔에 놓인 물건 중에 가장 필요 없는 물건”의 순위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순위가 바로 "성경"입니다. 국제선 교단체인 기드온 협회에서 전 세계의 호텔에 성경을 갖다 두었는데, 그것이 가장 필요 없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척 속상한 말이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호텔에서 성경이 유익했을 것입니다. 먼 여행길을 나선 사람들, 특별히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이 혼자서 호텔에서 지낼 때, 성경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방마다 텔레비전이 있는데, 무슨 이유로 성경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필요 없는 물건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걸쳐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의 발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학,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 세력 등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멸시하는 세력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텔레비전’입니다.

지난주에는 매스미디어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오늘날 텔레비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힘보다 강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이 소개된 이후로 말씀에 대한 헌신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텔레비전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성경을 보고 싶어도, 그 보다 더 재미있는 텔레비전이 눈앞에 있기에 성경은 항상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성경을 본다고 해도 텔레비전과 함께 봐야 합니다.

물론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너무 많다거나 텔레비전의 내용은 건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텔레비전은 그 자체가 성경의 정신과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체가 곧 미디어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매체가 곧 메타퍼다" 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이 말은 20세기, 21세기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인데, 쉽게 말해서 사회나 문화가 변하게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배우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용이 바뀌면 사회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 왔고, 매체란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매체가 사회를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인쇄라는 매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수 천 년 언어만을 사용하다가 1500년경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사회,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단지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가 바뀌었을 뿐인데 사회 전체가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글이 발달하자 과학이 발달했고, 이성이 발달했습니다. 예전에 글을 모르던 사람들과 글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글을 모르던 사람들은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암기력보다는 분석력이 더 발달하고, 비평력이 더 발달합니다. 더불어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텔레비전 시대가 왔습니다. 매체가 바뀌자 다시 사회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시대가 바뀌면서 텔레비전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이 나왔기에 시대가 바뀐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글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텔레비전'

무엇보다 텔레비전은 재미 위주입니다. 이 말은 텔레비전이 온통 오락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텔레비전 시대는 어떠한 주제를 다룬다 할지라도 "재미"라는 틀 속에 넣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치와 경제 문제도 재미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심각한 내용이라도 재미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근래에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코메디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감초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의 경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해도 재미있게 말하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오래 전, 어떤 아침방송에서 뇌 전문학자가 뇌에 대한 강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의외였습니다. "뇌"라는 분야가 얼마나 어려운 내용입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내용을 텔레비전에서, 그것도 주부들이 많이 보는 아침 방송에서 한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와는 달리 강사가 너무나 재미있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뇌 전문가는 그 분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분이 선택되어서 텔레비전에 나와 강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미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텔레비전을 "쇼 비즈니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텔레비전 볼 때는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주제를 다루더라도 잠시 보고 넘어갈 뿐이지 오랫동안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한 시간에 약 30여개 정도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각 사건에 할당된 시간은 불과 1-2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떤 일을 대할 때, 그 일이 아무리 심각한 일이라도, 순간적으로 반응하고 지나가야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보지 못합니다. 깊이 생각하다가도 아나운서가 "다음 뉴스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떠나야 합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이 떠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끼칩니다. 말씀을 멸시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는 재미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감정에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요즈음 사람들이 대할 만큼 재미있는 책이 아닙니다. 두꺼운 데다가 글씨도 뽁뽁하고, 내용도 많고, 무거워서 깊이 묵상하지 않고선 대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텔레비전 자체가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 아예 텔레비전을 보지 말자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지만, 다만 그 속성을 알지 못하고 대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오늘날의 교육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예전에 어느 자동차 회사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어려움들은 노사의 갈등,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 저렇게 극한의 방식으로 풀어야만 하는 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폭력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거리낌 없이 폭력을 사용하고, 그에 대해 조금도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부끄럽기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버린 원인 중에 교육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학생들을 '정복자'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정복'이라는 말이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됩니다. 이 말은 내가 공부하는 목표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목적이 달성됩니다. ‘정복’에는 정복하는 자가 있고, 정복당하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복을 당하는 자는 다음에는 반드시 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공부를 못하는 것은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강하게 폭력을 강요합니다.

또, 교육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요즈음 교대가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교사가 되는 것을 직업으로 생각합니까?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일을 직업으로 감당하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학생들이 이를 못 느끼겠습니까? 이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의 교육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교육은 성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잘되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멸시하는 모습입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예수 믿는 우리”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멸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텔레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교육이 멸시한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이를 알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인해 멸시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멸시를 당하는데 그냥 앉아있을 자녀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당하고 있는데, 어떠한 자녀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말씀은 세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멸시한다면, 세상이 성경을 멸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멸시는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데, 성경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수 있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부정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 종교개혁 = 하나님의 말씀 존중을 위한 개혁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는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은 말씀의 개혁**입니다.

예배는 온통 의식이 중심되었고, 말씀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은 바로 성경연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였던 그가 볼 때, 당시 성직자들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구원 교리까지 성경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사는 면죄부를 사면 조상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을 멸시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개혁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개신교 예배에서는 말씀이 항상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들이 먼저 말씀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목사 자신이 먼저 헌신함이 있어야 합니다.

종종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매번 잘할 수 있는가? 야구선수들도 3할만 되면 대타자이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한 달에 한 번만 잘해도 설교를 잘한다고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이 말은 목사 스스로가 자신을 야구 선수만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3할만 쳐도 대타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야구 선수가 나는 3할만 치겠다고 결심하면서 타석에 들어서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원하는 것은 타석에 설 때마다 안타를 치는 것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타석에서 아웃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도 그렇게 되지 못할 뿐입니다. 물론, 저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모든 목사들이 말씀의 사역만큼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말씀에 대한 소홀함이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 중에 헛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함께 크게 활동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분이 어떤 교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실망했다.”는 비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헛필드 목사님이 답장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맞는 지적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저를 관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보다 저 자신이 스스로에게 몇 배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 말씀의 집을 짓는 사람들

성도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과의 제목은 "말씀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말씀에 따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말은 말씀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을 잘못 지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기초를 만들었고, 마음대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내 마음대로 장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단지 겉모습만 아니라 근본적인 뼈대까지 바꾸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집을 지을 자재만 모으기만 해서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자재가 모여 집이 되어야만 우리가 쉴 수 있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모두 다 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결코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맞도록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첫 부분에는 '하늘과 땅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있습니다. 또, 성경의 첫 부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신약에는 그 메시아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두 다 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따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어쩌면 집을 짓다가 부수는 일을 수없이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할 노력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말씀으로 지어지는 신앙의 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말씀의 집과 세상의 집은 구조부터 다릅니다.

말씀의 집과 세상의 집은 그 구조부터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집과 이 땅만 바라보는 집은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집과 사람만이 사는 사람의 집은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또한 자기를 위해 짓는 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짓는 집은 그 외형도 다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초를 새롭게 놓아야 합니다.

과연 내 삶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집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집입니까? 혹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삶의 구조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내 삶의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이며,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삶의 장식들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떠한 것으로 말씀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이 더욱 빛나도록 하겠습니까?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행동 양식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은 성경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책도 모두 열심히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노력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할 즈음에 각 교육 부서를 담당하는 전도사님들께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중심이어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교회의 활동들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키워야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말씀에 헌신해야 할 이유 = 세상의 구원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방법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길입니다. 언젠가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을 회복하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셨던 하나님, 바벨론 포로의 고통까지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이 사명을 잃지 않도록 하셨던 하나님, 때가 되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하여 날마다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 기쁨이 만물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과 분열과 같은 세력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이 거룩한 사명만은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는 오늘도 끊임없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생명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내고, 그 일을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우리 속에 주어진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유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중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아무리 다른 것들이 만족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구원의 역사 = 말씀의 역사

그렇다면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이 구원 받아야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입니다. 교회는 어떤 시대이든지 말씀에 대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시대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삶의 우선권을 바르게 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우선권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분주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상 중에서 말씀을 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삶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삶의 우선권에 따라서 분배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우선권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말씀에 우선권을 둔다면, 항상 우리에게는 말씀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10. 하나님 나라와 생명사랑

“이웃 사랑인가? 원수 사랑인가?”

레위기19:17-18, 마태복음5:43-48



박원호 목사(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까지 모든 인간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산상 보훈의 많은 부분들이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마5:13)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마5:24)

남녀 간의 관계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마5:28)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예수님께서서는 인간관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먼저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웃 사랑에 담긴 생각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본문에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인간관계를 이루어 갈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관습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모들로부터, 사회적으로부터 배운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성품과 경험에 의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매겨진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므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은 이방인들의 생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한 그들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원수가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서로간에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귀함을 가버이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웃은 자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심지어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 일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원수는 누구라도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실제로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편을 들었습니다. 로마에 협조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고, 로마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원수 사랑의 가르침

본문의 내용을 전통적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악의 순환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앞서 언급한 전통적 가르침으로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 족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악의 순환적 측면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심 되는 가르침이며,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동시에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며, 이해조차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이같이 한 족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됨은 무엇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원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 역사 속의 잘못된 이해와 행동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말씀과 반대되는 수많은 죄악과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를 미워하였고 핍박하는 자를 죽였습니다. 조금의 가책도 없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이슬람인들과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30년 종교 전쟁 동안에는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 서로를 죽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원수로 삼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불교 믿는 사람은 상대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배척하고, 무속을 믿는 사람들은 아예 말살 시켜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념이 다르면 무차별 공격하며, 교회 안에서도 자유주의, 보수주의 운운하면서 수많은 형제들을 원수로 대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랑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죽여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 이웃 사랑 : 원수 사랑 - 기독교 신앙이 주는 관계의 본질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말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함리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어떤 생명도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은 종교도, 이념도, 철학도 넘어서야 합니다. 심지어 이단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은 대적해야 하지만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 가지 사랑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입니다. 이 둘은 비슷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질 사랑이 아닙니다. 이는 이방인들이나 가질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 안에는 엄청난 해악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 안에는 당파심이 숨어 있습니다. 편파주의, 족벌주의, 인종차별주의가 숨어있습니다. 민족주의가 숨어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늘날 이 문제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해야 할 교회들이 도리어 사회를 어렵게 하는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교회와 나누고 있고, 성령의 역사를 교회 안에 가두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이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들을 품지 못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사랑함으로서 편협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물을 보는 관점이 하나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와 다른 관점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려서 만나게 된다면 당연히 닫힌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웃 사랑을 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비난하셨던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을 비난하셨습니까? 그들은 가장 거룩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함과 경건을 강조했고, 누구보다 헌신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로 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비난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차별성과 배타성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다르면 배척하였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차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건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아무리 헌신을 강조하여도, 그들의 신앙이 배타성과 차별성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포용성과 개방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규율과 법을 만들어서 그들의 법에 맞지 않으면 철저히 차별하고 배척했습니다. 이들의 정결 의식에 따르면 세리도, 여인도, 이방인도, 손을 씻지 않으면 배척당합니다. 손을 씻지 않는다는 그 하찮은 규율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배척했습니다. 십일조 또한 배척의 도구였습니다. 십일조를 드리지 않으면 설령 박하와 향유를 사용하더라도 그들의 식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이러한 이유로 고통을 겪었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은 온 민족이 적이 되는 다른 민족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타민족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분리와 배척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이란 분리와 배척이 아니라 포용과 공함이었습니다. 함께 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리와 여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심지어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나아가 로마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고, 오히려 그의 믿음을 가장 높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에 머물지 않고, 원수 사랑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세가지면에서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대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되 예수님처럼 바라봅니다. 예수님처럼 느낍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되 예수님처럼 바라봅니다. 예수님처럼 느낍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갖습니다. 이 "다름"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멸시할 대상으로, 재수 없는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 저주하고 비난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극진히 사랑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달라야 합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하고, 느끼는 모습이 달라야 하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없다면,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성경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연히 믿음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관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태도와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둘째,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우리는 그 분의 사랑으로 산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이요, 그 분의 사랑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 다른 종족,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도 모두 생명입니다. 그리고 원수라도 생명입니다. 그 모든 생명들도 하나님의 생명들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생명들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비와 해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해도 거두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자식이 아무리 악해도 부모가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이 포기해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생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셋째,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사람의 모습을 만드는 근본입니다. 죄가 사람을 만듭니다. 죄가 역사하면 사람은 당연히 악해질 수밖에 없고 악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입었느냐,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죄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그들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창기라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리라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안에 죄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역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저주할 수 없는 것은 그들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는 변명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길은 오직 하나 뿐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간에 공허함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이 악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생명의 근본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죄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 삶 속에서 원수 사랑

사람 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순간마다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느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자기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 해주었다고 합니다. “내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단다.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셈이지. 좋은 늑대와 나쁜 늑대가 내 마음 속에 있는데, 누구에게나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이 두 마리가 늘 싸우는 거란다. 좋은 늑대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악한 늑대는 추한 것들을 만들어낸단다. 정직하고 순수하고 사랑하는 것은 선한 늑대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는 것은 악한 늑대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러자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누가 이기나요?”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죄의 세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죄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에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웃이 아니라 원수요, 박해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다른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봅니다. 이웃도, 원수도 모두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방인들은 말합니다. “어떤 이는 사랑해야 할 사람이고 어떤 이는 미워해야 할 사람이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이방인들은 말합니다. “원수는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보복하라.”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 대전제로서의 하나님의 사랑

요한 일서 4장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랑이 많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랑이 풍성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랑이 많다, 풍성하다’는 말의 의미는 사랑이 많기는 하지만 다른 감정도 있다는 뜻입니다. 미움도 있고 저주도 있고, 멸시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사랑이 90%있지만 미움도 10%있다.’ ‘사랑은 99%이지만 미움도 1%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100%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밖에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대하실 때, 오직 사랑으로만 대하십니다.

●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모든 생명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악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을 미워하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사랑하실 뿐입니다.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선인과 악인을 대하실 때, 이 둘 모두를 같은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의인에게 해를 더 많이 주고, 악인에게 해를 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에게 비를 더 많이 주고, 악인에게 비를 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똑 같이 주십니다. 항상 같은 모습으로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악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를 비유로써 설명하십니다. 어떠한 농작물도 해와 비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모든 농작물, 모든 생물은 반드시 해가 있어야하고 비가 있어야합니다. 만약 해가 부족하고, 비가 부족하다면 반드시 농작물이 말라지고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할 뿐 아니라 빗갈조차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농작물이 마르고 비틀어지고 보기 흉한 모습이 됩니까? 원래 그렇게 생겨서가 아닙니다. 햇빛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햇빛만 충분하다면, 물만 충분하다면, 말라서 비틀어질 농작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인장의 경우, 비가 부족하면 더 많은 가시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속에 더 많은 악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라도 자기가 소외당한다고 느끼면, 미움 받는다고 느끼면, 그 속에서 순식간에 가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가시들이 자랍니다. 반면 사랑을 받으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이상구 박사가 두 마리의 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똑같은 음식을 주면서 한 마리는 늘 쓰다듬어 주면서 음식을 주었고, 다른 쥐는 성의 없이 밥만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난 뒤, 두 마리 쥐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마리는 건강하고 털도 윤기가 흘렀지만 다른 한 마리는 건강하지도 않았고 몸에 암까지 생겼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은 사랑을 받아야 건강해지고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생명에게 사랑이 부족할 때, 악한 모습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은 본래 저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악한 모습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대적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망칠 뿐입니다. 몸에 생긴 상처는 감싸주고, 치료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자꾸 들춰내면 낼수록 상처는 더욱 덧날뿐입니다.

사람은 선할 때나, 악할 때나 사랑을 먹고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에게 해를 주십니까? 왜 그들에게 비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악하게 된 것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셨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생기면서 이 사랑이 부족하면 사람들 속에서 악한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미움이라는 병이 생기고, 두려움이라는 병이 생긴 것입니다.

● 의지와 결단으로서의 원수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결코 감정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보니 가슴이 뛰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감정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요, 결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말입니다.

물론 마음속에 건드릴 수 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 모든 갈등을 이기고, 저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요, 사랑이 없어서 고통 하는 생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선인장은 비가 부족할수록 더 많은 가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만들어내는 선인장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를 핍박할수록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뛰어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1-11. 하나님 나라의 제자

“제자란 무엇입니까?”



박원호 목사(주님의교회 담임목사)

●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열두 제자라는 말도 알고, 이것이 열두 지파를 상징하고 있으며 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단어이지만, 뭔가 이 단어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목회에서 제자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고, 제자들이 단지 옆에서 보조 정도로 일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그냥 예수님 사역을 위한 보조로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 제자에게 주어진 산상수훈과 지상명령

사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비유들 역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가 아니고서는 이해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는 말씀들입니다. 특히 지상 명령(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를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주님을 통한 가장 큰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고, 이 사역이 제자들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사역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명령입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의 모든 사역을 맡아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 죽을 각오로 하는 제자 훈련

따라서 주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들을 키우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엄청난 사역을 이들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는 목사를 키우기 위해 3년간 신학생들을 훈련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이들을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여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이들에게 요구하는 훈련이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박창환 목사님이 수업 첫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는 순교할 각오로 하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 부친께서는 이북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신 분의 아들이 순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장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날 교회론 시간에 들어갔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학교 다닐 때에 교회를 충성하는 자세를 배워야합니다.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회를 못합니다. 신학교 때부터 충성한 사람이 나중에도 충성합니다. 지금부터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런 자세가 없으면 학교를 떠나십시오.” 그래서 또 교회에 가서는 죽도록 충성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예배 시간에 어느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 없이는 결코 목회를 못합니다. 기도를 하되 죽을 각오로 기도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은 어릴 적부터 새벽기도를 하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새벽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아예 목사 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 때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목회 현장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다가 죽습니다. 실제로 신학교를 다 마치고 새벽 기도를 못해서 목회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하여라.’라는 말씀입니다. 공부할 때도, 교회를 섬길 때도, 기도할 때도 죽도록 하란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박 전도사, 목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네, 성질을 죽이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있고 기도를 잘해도, 성질부리면 그 날로 교회를 떠나야 하네. 성질을 죽이게. 교회를 떠날 각오가 되어 있거든 성질을 부리게.”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죽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정에서도 죽을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학교에 가면 온통 죽으라는 말 뿐입니다. 이것이 신학 3년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막상 목회 현장에 나가면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 기다릴 수 없는 사역인 제자 양육

왜 주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신 것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곧 바로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역이 아니란 뜻입니다. 처음부터 부르셔서 이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만 계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뒤에는 이들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겨우 3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동안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도록 하셔야 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알도록 하셔야 했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갖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을 버리고 철저하게 섬기는 모습을 갖도록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 명이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말씀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이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서는 모든 시간을 함께 하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이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의 핵심에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은 그 어떤 사역보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우선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사역은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중 거의 모두가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만약 제자들을 준비해두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은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 제자 양육의 4단계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양육에 뚜렷한 계획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되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단계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와 보라”는 단계입니다. 이 때 주님 자신을 알리셨고 자신의 사역도 알리셨습니다. 다음에 이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역하는 삶과 방법을 친히 보여주셨고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와 함께 있으라”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이들 가운데 지도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하도록 하시면서 지위와 권위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제자를 삼아라”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들이 나가서 다른 제자를 삼는 사역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제자의 수가 70인으로 늘어납니다.

● 제자는 변화와 부흥의 중심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초대 교회가 온전히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초대 교회의 목회는 제자 양육을 통한 목회였습니다. 이들이 능력 있게 전도하고 핍박을 이겨낸 것도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6절의 말씀은 대표적인 제자 양육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모습은 완벽한 제자 양육의 과정입니다. 이들은 가정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충실히 제자를 양육함으로써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요 주님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에 모든 삶을 다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또한 가는 곳마다 제자를 삼습니다. 실라가 있었고 디모테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디를 가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목회 방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제자들의 능력 때문 이었고, 초대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들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제자로 헌신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복음 전파에 앞장섰고, 새 신자들을 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스테반으로부터 시작한 순교의 물결이 끊어질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겠습니까? 철저한 신앙 양육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 성령의 불씨가 붙어야 합니다

왜 제자 사역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하고, 왜 제자 사역을 중심으로 삼는 교회가 오늘날도 성장합니까? 그것은 제자양육 사역이 주님께서 하신 목회사역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그의 본을 따라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를 소홀히 여긴다면 성령의 역사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도 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우리들은 다 주님 앞에 서야할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연히 우리들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집에 벽난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벽난로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불씨가 있습니다. 그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스위치를 켜면 불이 붙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동시에 가스가 공급되고 불이 붙는 것입니다. 불이 붙으면서 거실이 훈훈해지고 밖에서 움츠렸던 사람들도 몸을 데우고 집 안에서 마음 놓고 쉬기도 합니다. 이것이 불을 지피는 이유입니다. 불이 지펴지지 않고 불씨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불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씨가 있는 것은 불을 붙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성령이 마치 불씨처럼 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역사할 때,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의미를 발견하고 내일이 보람되고 나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가 되라는 말은 불씨에 불을 붙이라는 말입니다. 불씨에 불을 지피서 그 열기를 뿜어 내라는 말입니다.

충실한 제자들은 자기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습니다. 자기 일에서 깊은 의미를 깨닫습니다. 자신에 대한 존귀함을 가집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를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실한 목적을 갖기 위함이고 내가 하는 일에 깊은 의미를 깨닫기 위함이며 내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열두 제자만 주님의 제자입니까? 무척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 본문의 대부분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열두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도 제자라면, 성경의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해석이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열두 제자와 같은 제자가 아니라면,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를 향한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두 제자와 같은 제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만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열두 제자들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주의 제자라는 말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때에는 열두 제자들이 다 죽었을 때입니다.

● 좋은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들도 많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정말 좋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정말 저 분은 믿음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정말 저 분은 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저 분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묻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르침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교제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합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 제자는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은 우리가 다 자기 일을 그만두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제자화를 하는 많은 교회들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목사가 되는 것이나 아니면 목사처럼 되는 것이 최고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고 나면 실제로 목사처럼 되려고 합니다. 제자화의 목적은 결코 모든 사람을 목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여러분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더 여러분의 일터에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 목사가 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성된 제자가 된다는 말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 소그룹을 통한 제자화

제자화를 위한 첫걸음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그룹 모임입니다. 교회가 소그룹을 만들고 매주일 모여야 하는 이유는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배가 은혜로워도 그 한 번의 예배로는 제자 훈련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소그룹을 통한 훈련이 없으면 신앙은 갈수록 습관화되고 형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결코 자신의 신앙을 이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간신히 이어나가는 것으로 만족해선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능력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물론 매주일 소그룹으로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길이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 하나님 나라의 제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전부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집중하셨던 사역이 바로 제자를 만드시는 제자화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먼저 이러한 사명은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며, 그 한 사람의 진정한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 17절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참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헌신된 주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헌신된 제자로서의 삶은 평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친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친구로 초청하십니다.

1-12.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사랑의 섬김”

시편123:1-4, 요한복음13:4-7



박원호 목사(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룩한 지도력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지도자의 경험과 역할을 많이 감당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지도자의 성격이 아닙니다. 남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렵고, 사람을 다루는 능력도 부족하고, 행정 능력도 부족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또한 신앙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종이 되어야 되지, 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섬김 받기 보다는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우리 중의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의 자질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소금과 빛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이 당연히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특별한 자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을 향해 몇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지도자라면 우리가 왜 세상에 끌려가야 합니까? 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물결치는 대로 끌려가는 성도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런 힘도 없다면 과연 바람직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르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차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참된 능력은 이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입니다.

시카고의 윌로우크릭 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에서는 매년 “지도자 세미나(Leadership Summit)”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집회인데, 몇 년 전부터는 위성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세미나를 갖습니다. 강사들은 각 분야에 세계적인 지도자들로써 유명한 기업가, 정치인도 있고, 문화계의 인사들도 있습니다. 이 집회를 주관하는 윌로우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Bill Hybels) 목사님은 종종 “본인으로서 이 집회가 가장 의미가 있는 집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미나를 통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거창한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을 변화시켜나가는 사명을 감당함으로서 지역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 참된 의미의 지도력 -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우리는 흔히 지도력이라는 말을 외형적으로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권세나 돈과 같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앞장 서야 하고, 남에게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의미의 지도력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비록 아무 권력도 없고, 지위가 없어도 영향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적합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힘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가 쓴 『동방으로의 여행(Journey to the Eas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동방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때 여행을 도와주는 리오(Leo)라는 심부름꾼이 있는데, 모든 허드렛일을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리오가 사라집니다. 그러자 모든 일이 다 엉망이 되었고, 결국 여행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리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리오를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리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오와 함께 다시 여행을 시작했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도착점에서 비로소 그들은 리오가 훌륭한 지도자요, 정신적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는 처음에는 종이였으나 그의 영향력은 지대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지도력을 포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자신의 것을 돌아보며, 세상을 돌아보다가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오

히려 세상에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지도력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 주님께서 보여주신 지도력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13장의 시점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목요일입니다. 다음 날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주님께서 이틀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본문에서는 이 사실이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날이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난 뒤에 죽으셔야 합니다. 불과 하루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숨이 가빠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식구들을 둘러보면서 손을 잡기도 하고, 아니면 오고 있는 식구들이 있으면 빨리 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을 보내시는 그 방에 대야와 수건이 놓여있습니다. 모두 발을 씻을 때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여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발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에는 대야, 물, 수건이 준비되어 있었고, 발을 씻어줄 종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종들이 하는 일 중에서도 발 씻는 일은 가장 천하고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 정작 발 씻을 종이 없었습니다. 모두 이상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아니, 도구를 준비했으면 종도 불렀어야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편한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것인가?"

"적어도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설마 내가?"

이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더니 겹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발을 씻겨주십니다. 요한의 발을 씻기시고, 야고보의 발을 씻기시고, 시몬의 발을 씻기시고, 도마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 하나가 그들에게 너무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베드로에게 가실 때까지 다른 제자들은 감히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거운 침묵, 온 세상이 멈추는 것 같은 고요함, 모든 세력이 지켜보는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글을 기록하는 요한은 최상의 경건함으로, 그 어떤 말을 더 첨가할 수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두려움으로 한 절, 한 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단 한 번, 숨을 돌리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에"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나 무거운 거룩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 본문에 참여하라고, 우리도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이 장면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습니 다. 즉흥적인 행동도 아니고, 형식적인 모습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결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상상할 수도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소망입니다. 왜 마지막 순간에 이 일을 하였고,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전해주시고자 하셨습니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주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이제 이들 앞에서 주님은 외적으로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내려 놓으셨습니다. 선생으로서의 지위도, 풍량을 잠잠케 하셨던 능력도, 죄 사함을 베푸신 권세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위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들을 대하되 생명과 생명으로 대할 것이요, 인격과 인격으로 대할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할 것입니다. 이들을 판단하는 것들도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재물의 겉옷도 내려놓을 것이요, 지식의 겉옷도 내려놓을 것이요, 지위의 겉옷도 내려놓을 것입니다. 이제 곧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져서 찢겨야 할 옷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달리셨습니다. 억지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신 일이요, 기쁨으로 하신 일입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주님은 수건을 가져다가 이들을 감쌀 것입니다. 피곤한 이들을 감쌀 것이며, 비천한 이들을 감쌀 것이며, 죄로 얼룩진 이들을 감쌀 것입니다.

“허리에 두르시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온 힘으로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온 힘을 다해 이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수고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 하시겠다는 뜻이며, 사랑의 수고를 위해 온 힘을 다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물을 떠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의 발아래 머리를 숙이시며, 그들의 필요를 들으셨고, 아픔을 들으셨고, 소망을 들으셨습니다.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고, 상처 난 발을 감싸 주셨고, 비천한 발을 존귀하게 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비천한 피조물의 발을 친히 씻기심으로서 섬기신 사건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마지막 환송의 자리가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준비된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알려주신 순간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을 바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인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해 집중하고 있을 때, 최후에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결코 잊지 않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반드시 제자들이 따르도록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을 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지도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존귀하게 되려는 소망이 있고, 섬김 받으려는 소망이 있고, 또한 영향을 끼치려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소망이 아닙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결코 비천하게 만들지 않았습시다. 노예로 살도록 하지 않으셨고, 종으로 살도록 하지도 않았습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한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피조물입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자신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혁명은 영향력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하고, 환경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 지도력의 최고 원리

이 땅에 새로운 리더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도자가 새롭게 되면서 이 땅의 모든 거짓 지도자의 모습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힘을 앞세우고, 돈을 앞세우고, 지위를 앞세우고, 자신을 앞세우는 지도력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억눌린 백성들이 존귀하게 될 것이며, 차별 받는 백성들은 기뻐하며 떨 것이며,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섬김이 가능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지셨기에 이토록 큰 영향력을 미치셨습니까요? 과연 주님의 바른 지도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함이 우선이었습시다. 본문은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발을 씻을 줄 아는 지도자들에게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발을

씻을 줄 아는 지도자들에게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 때문이라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떠한 수고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수고가 큰 수고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이 바로 발을 씻을 수 있는 동기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마지막까지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사랑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강도와 같은 자라도 그 생명은 마지막까지 사랑의 대상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주님께서서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 가실 것입니다. 가장 믿었기 때문에 회계를 맡겼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로마 군대를 찾아가서 그들과 협상했고, 그 방법도 논의했습니다. 자기의 선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룟 유다도 주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당연히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는 마귀에게 팔려간 생명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생명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력이 방해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삶의 마지막이라도 포기될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팔려는 순간에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어떻게, 왜 사랑해야 할까?

생명 사랑은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생명을 품는 따뜻한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은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인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에게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진정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이 둘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뱀과 비둘기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참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에는 뱀과 같은 강한 정신력이 있습니다. 이 정신력이 있어야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고, 거짓을 분별하며, 용기 있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냉정하고 독재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을 위해선 비둘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고통에 아파할 줄 알아야 하고, 눈물에 동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에게는 뱀 같은 지혜가 있고, 비둘기 같은 순결이 함께 있습니다. 만일 강한 정신만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땅에 의는 세워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분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셨기에 모든 생명을 사랑과 은총으로 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사랑의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수고는 생명을 사랑하기 위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발 씻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생명 사랑은 발 씻음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참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함'을 사명으로 가져야 합니다. 생명 사랑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주님께 서는 세상에 있는 동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란 것을 아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는 바로 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이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자기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제자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제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 사랑은 사명이었습니다. 소망만도 아니고, 지식만도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이기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란 말은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을 훈련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캠페인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의지로 감당해야 합니다. 겉옷을 벗어야 하고, 허리에 수건을 둘러야 하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훈련된 성도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란 것은 결코 순간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하고, 원치 않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를 부인함 없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모습들, 약한 모습들을 훈련을 통해 이겨야 합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훈련해야 하고, 말씀 생활을 훈련해야 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훈련해야 하고, 시간 사용을 훈련해야 하고, 언어 사용을 훈련해야 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훈련해야 하고, 돈을 쓰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